

지역 소식통

부안군, 주민참여예산
학교 현장학습 추진

부안군은 15일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와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총남 공주시 및 당진시의 참여예산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현장학습을 추진했다.

이날 30여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공주시의 수곡정원과 당진시의 여성청소년자치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제안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우수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군에 접목시킬 사업 발굴을 위해 해당 지역 참여예산위원 및 관계자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벌였다.

이번 현장학습은 참여예산 사업 제안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읍·면 지역회의 위원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진행됐다.

이영식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현장학습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음식물 쓰레기
관리 '환경부 장관표창'

고창군이 환경부 주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 평가에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상황에 대한 실적과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공동주택에 대해 2013년 이후 4억5000만원을 들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277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희망을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내 14개마을 선정해 퇴비만들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 후계농 육성 '박차'

정읍시, 미래 농업 선도 위해 영농 정착지원 현장지원단 운영 간담회 열어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청년 농업인이 넘치는 새롭고 활기찬 농업·농촌 성장을 이루기 위해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을 이끌어 갈 30명의 청년 후계 농업인을 선발했다.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된 농업인에게는 농가 경영비와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8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비우체 카드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최대 3억원 한도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 2%의 융자 조건으로 농지 구입과 시설설치, 농기계 구



입 등 영농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관련해 시는 15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청년 창업농 선정 2~3년 차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 현장지원단 운영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가 방문 등을 통해 영농생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의무이행 과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노하우와 재배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불안정한 농장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지원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지원단은 오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청년 후계농의 영농현장을 방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영농기술 경영현황 진단과 코칭, 독립 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미래 농업 분야를 선도할 젊고 유능한 청년 후계농 대상자들이 영농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 후계농은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 3년 차 미만 농업인 중 선발하며, 올해 30명을 포함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7명이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선운산공원에 활짝 핀 꽃무릇.

'이 가을, 당신 위한 레드카펫'

고창군 선운산공원, 꽃무릇 활짝

바라볼수록 뜨겁게 돌아오는 열정과 그리움 선운산 계곡 깊숙이 레드카펫이 깔렸다. 가느다란 꽃줄기 위로 여러 장의 빨간 꽃잎이 한데 모여 말아올린 자태가 빨간 우산을 펼친 것만 같다. 살펴주는 이 아무도 없어도 꽃들은 수수하게 잘도 피었다.

추석을 앞두고 고창 선운산 계곡 사이사이 꽃무릇의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15일 고창군 선운산공원에 따르면 선운산 꽃무릇의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해 이번 주말부터 개화해 화려한 군무를 펼칠 전망이다. 꽃무릇은 통상 개화 후 열흘정도가 절정기로 알려져 있다.

선운산 꽃무릇은 5월께 열이 나왔다

가 7월께 지고 나면 9월초 꽃대가 솟아난다. 9월 하순이 되면 꽃이 붉게 피어오른다. 한 뿌리이면서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 '화염불상견 상사초(花葉不相見 想戀草)'의 그리움과 아련함으로 회자되는 꽃이다.

가려진 모습과는 달리 뿌리에는 코끼리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독이 있다. 그 옛날 단청이나 탕화 보존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질 주변에 꽃무릇을 많이 심었다고 전한다.

고창군 산림공원과 박진상 과장은 "선운산 곳곳에서 꽃무릇을 감상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고창 선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정 이래 첫 의사면허 보유 박찬병 보건소장 임용

부안군, 전국 공개 모집 채용

부안군이 개정 이래 처음으로 의사면허를 보유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군은 부안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안군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의사를 전국에 공개 모집해 박찬병 보건소장을 최종 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찬병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

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경북 경주시·경기도 광명시 및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장, 경기도립 의료원 수원병원 원장, 삼척·천안의료원 원장,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을 거치는 등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의료기관장으로 근무한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로 지역 보건·의료 및 공공보건 의료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오는 19일자로 임용하는 박찬병 보건소장의 임기는 2024년 9월 18일까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간

지 근무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보건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의사면허를 소지한 분들이 지자체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 임용으로 보건소 전반의 업무는 물론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국회 찾아 갯벌보전본부 유치·국가예산 확보 활동

심덕섭 고창군수가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를 포함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단계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심덕섭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을 연이어 면담하고 고창군 중점사업 설명과 국회 단계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관련, "세계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간위치는 전복도가 최적 지점"을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 차



원에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군이 내년도에 반드시 본 도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안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고창군의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함께 노력해 전라북도 고창에 사업이 유치·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심덕섭 군수는 "국회 단계에서 지역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규모 공모사업들은 계획서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치권과 협력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지역 농축협, 농업발전 실무추진회의 가져

정읍시와 지역 농축협이 지역 농업발전과 공동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5일 제2청사에서 농협 정읍시지부를 비롯한 지역 농축협과 2023년 지자체-농축협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2차 실무추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행정과 각 농축협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 지역농업 발전을 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 내 10개 농축협 관계자와 농업기술센터 농업 실무부서 공무원 등 총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김백환 농업정책과장이 행정과 농축협 실무자들이 발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설

명했다.

또 농업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농축협은 친환경농업·축산·원예 등 총 38건의 사업에 전년 대비 31% 증액된 121억원 예산의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은 농축협별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회성 보조사업이 아닌 가공·유통·관로화보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백환 위원장은 "이번 지자체-농축협 간의 협력사업을 통해 정읍의 농업, 농촌, 농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도적인 농업행정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